

[ 잿더미 된 송례문 ]

송례문 방화 재구성

두차례 사전 답사...누각 2층 바닥 시너 뿌린 뒤 불질러

송례문 화재 피의자로 경찰에 붙잡힌 채모(70)씨는 시너 3병과 일회용ライター 1개로 '국보1호'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든 것으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12일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채씨는 범행 당일인 10일 오후 3시께 이혼한 아내의 주거지인 강화도에서 일산으로 이동한 뒤 다시 버스를 타고 시청과 송례문 사이에서 하차해 도보로 송례문까지 이동했다.

채씨가 송례문 앞에 도착한 시각은 오후 8시 40분 전후로 추정된다. 채씨는 8시45분께 송례문 서쪽 경사지를 기어 올라간 뒤 다시 준비해온 접이식 알루미늄 사다리를 사용해 송례문 서쪽 성벽을 넘어 바로 2층 누각으로 잠입했다.

채씨는 여기서 미리 준비한 시너가 담긴 1.5ℓ 페트병 3개 중 2개를 바닥에 놓고 나머지 한 병의 뚜껑을 열어 시너를 바닥에 뿌렸다. 그리고 곧 일회용 라이터를 불을 붙였다. 경찰은 발화 시각을 목격자 신고가 들어온 오후 8시45~48분께로 추정하고 있다.

송례문 화재 직후 목격자들은 "60대 전후의 남성이 등산을 배낭과 사다리를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바 있다.

채씨는 당시 현장에서 방화에 사용한 일회용 라이터 1개, 사다리 1개, 배낭 등을 현장에 두고 처음 잠입했던 방향으로 도망쳤다고 진술했다.

접이식 사다리 이용 서쪽 성벽 넘어 누각 침입

범행 후 강화도로 도주... 23시간만에 붙잡혀

가져왔던 범행 도구들은 거의 현장에 둔 채였다. 경찰 역시 지난 11일 현장 감식을 통해 "라이터와 알루미늄 사다리를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힌 바 있다. 채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인근 지하철역으로 이동한 뒤 지하철 및 버스를 번갈아 타고

아들이 살고 있는 경기도 일산으로 이동했고, 다시 이혼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강화도로 몸을 피했다.

하지만 채씨는 동종범죄전과에 인상착의가 비슷한 점에 주목한 경찰의 추적을 피하지 못했다. 경찰은 11일 오후 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하고 채씨가 은신해 있는 강화도에 수사대를 급파했다. 범행 23시간 뒤인 11일 오후 7시 40분 강화도 하점면 장정리 마을회관 앞에서 경찰을 만난 채씨는 당일 행적을 집중추궁하는 경찰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채씨 전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너통과 시너 냄새가 나는 가죽장갑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강화도에 가서 채씨를 붙잡았을 때 전혀 숨거나 도망가려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누군가 이미 자신을 잡으러 올 줄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민성금으로 복원하자”

이명박 당선인 제안  
일부 네티즌은 비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화제로 소실된 송례문을 국민 성금으로 복원하자고 제안했다.

이 당선인은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에서 열린 인수위 연석회의에 참석해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채씨 전처 집에서 범행에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추정되는 시너통과 시너 냄새가 나는 가죽장갑 등을 발견했다.

경찰은 "강화도에 가서 채씨를 붙잡았을 때 전혀 숨거나 도망가려는 모습이 아니었다"며 "오히려 누군가 이미 자신을 잡으러 올 줄 알고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싶다는 강력한 의사를 오늘 아침에 보내왔다"고 소개했다.

그는 "정부 예산보다 오히려 국민이 십시일반으로 참여하는 성금으로 복원하는 게 국민에게 위안이 되지 않겠나,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같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국민을 봉으로 아느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난 2006년 서울시청 재직 당시 송례문을 개방한 이 당선인의 책임론이 '국민성금 복원 발언'에 얽히면서 누리꾼들의 감정적 저항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5공 시절 금강산 탐승금 건설을 꼬집어 내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송례문 국보 1호 유지”

안휘준 문화재위원장

안휘준 문화재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송례문의 국보 1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문화재위원회 건축·사적분과 합동회의를 열어 만장일치

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송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할 당시 목조건축만이 엄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 등 복합적 요소를 감안해서 결정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목조건축이 부분적으로 훼손됐다고 해도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지 않았다"는 데 더 뜻을 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묻지마 범죄자’ 조회·목격자 제보 덕

어떻게 검거했나

국보 1호 송례문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하루만에 전격 검거된 것은 동종 전과라는 '표리표'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이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채모(70)씨는 2006년 4월 자신의 토지 보상문제로 사회적 불만을 품고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집

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송례문 화재 직후 방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자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정치적 불만 등을 이유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준 소위 '묻지마 범죄' 전과자들을 조회해 선별해나갔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2년 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던 채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추려냈다. 창경궁 방화 당시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신문지를 이용해 문정전 인쪽 문을 태운 범행 수법도 송례문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11일 오후 강화도 하점면 채씨 집을 방문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다리 3개와 가방, 의류, 시너 1병, 시너 냄새가 나는 장갑 등을 발견하고 심증을 굳혔다. /연합뉴스

토지보상 10년 불만... 2년전에도 창경궁 방화

범행 동기 원가

송례문을 전소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채모(70)씨는 자신이 사회의 냉대를 받는다는 생각에 억울함을 알리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2006년 4월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놓았을때와 똑같은 동기로 대상을 국보 1호로만 바꿔 '사회·문화적 테러'로 국민을 허탈하게 만든 것이다.

1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채씨는 1998년 고양 일산에 있는 자택 부지

가 신축되는 아파트 출입을 위한 도시계획 도로에 포함되면서 받게 된 보상금이 적다는 데 심한 불만을 품었다.

당시 땅에 매겨진 가격은 9천600만원이었지만 채씨는 4억원을 요구했고 채씨가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부지는 아직도 공터로 남아있다. 합법적인 수단이 통하지 않자 채씨는 '억울함을 공포하겠다'는 발상으로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놓았지만 취지에 공감을 얻을 리 없었고 전과와 추정

금만 떠안게 됐다. 채씨는 사건의 피해회복을 위해 공탁금 600만원을 걸었다가 추징금 1천300만원을 선고됐는데 이 또한 역을 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다. 채씨는 2006년 7월 집행유예를 받아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면서부터 가중된 불만을 더 크게 품고 할 재판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종묘와 대조궁 등을 둘러보며 계획을 짜던 중 경비가 허술하고 접근이 쉬운 송례문을 범행대상으로 선정했다. /연합뉴스

종묘보다 경비 허술하고 접근 쉬워

왜 송례문 택했나

국보 1호 송례문이 방화 대상으로 지목된 건 경비가 허술하다는 점 때문이었다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12일 브리핑에서 "피의자 채모(70)씨가 경비가 허술하고 접근이 쉬워 송례문을 방화 대상으로 삼았다고 자백했

다"며 "종묘와 같은 다른 문화재는 야간에 출입이 통제되는 등 경비 시스템이 삼엄해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송례문이 야간 경비가 엄하지 않은 데다 일반의 접근까지 용이해 방화 위험을 안고 있었다는 사실은 일각에서 줄곧 지적하던 사안으로 이번 사건을 통해 뚜렷하게 확인됐다. 송례문 관리자는 평일에는 3명이

상주하지만 휴일에는 1명으로 줄어 들고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폐쇄회로(CC)TV와 적외선 감지기 등 무인시스템에만 의존하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야간과 휴일에 노출되는 송례문의 이 같은 허점을 두 차례의 사전 답사만으로 완벽히 간파하고 손쉽게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

실측도면 있어... 금강소나무 확보 관건

복원 부재 어떻게

송례문의 원형 복원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문화재청은 정밀 실측도면이 있어 송례문의 기술적인 복원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적절한 부재를 어떻게 확보하는 지가 관건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2006년에 발간된 송례문 정밀실측 보고서에 따르면 송례문 부재 중 수

은 12일 "2층 문루 부분은 대부분 새 부재로 복원해야 하지만 1층 문루 부분의 부재는 80% 가량이 재사용이 가능하고 석축 부분은 99% 그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적의 목재를 구하는 것이 가장 관건이다. 2006년에 발간된 송례문 정밀실측 보고서에 따르면 송례문 부재 중 수

종 조사가 실시된 목재는 총 120점이었으며 그중 대다수인 116점이 소나무류로 밝혀졌다.

조선 공궤를 짓거나 왕실의 장례용 관을 짜는 데 사용된 토종 금강 소나무의 경우 재질이 단단하고 잘 썩지 않아 문화재 복원 과정에서 주로 쓰이는데 현재 수량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the 2008 Kwangju Marathon. It features a large photo of runners and text in Korean: "꿈·건강·행복·사랑..." and "제43회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 It lists the date as March 1st, 2008, and provides contact information for registration and inquiries.